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문순규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문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
----------	----

발의연월일 : 2026. 7. 13.

발 의 의 원 : 문순규·강창석·곽은정·권순재·김우진·박연정
백승규·변보미·하경석·홍용채·황점복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에 공식 착수함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극심한 문화 인프라 편중을 시정하고 정부가 100만 특례시민과 약속했던 국정과제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정책적 결단이 강력히 요구됨
-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 3개소와 중부권 청주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권역별 집중 현상이 지속되는 반면, 경남·부산·울산을 아우르는 동남권 전역에는 국립미술관이 단 한 곳도 없어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권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 특히 ‘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의하면 경남의 인구 100만 명당 미술관 수는 3.10개로 전국 평균(5.66개)과 지방 평균(7.19개)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며, 창원시는 비수도권 유일의 100만 특례시임에도 국립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임
- 이에 현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남 7대 공약이자 15대 추진 과제로 명시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 이행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해양 조망형 입지 조건을 갖춘 마산해양신도시에 분관 건립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2. 주요 내용

- 문체부의 신규 분관 수요 조사가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수도권 편중 해소와 현 정부 공약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역 실태 및 유치 당위성을 적극 반영하여 확정되도록 촉구함
-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을 배출한 문화 거점도시이자 특색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보유한 창원시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형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선도적 스마트 미술관 구축 방향을 제시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경남 핵심 공약인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국립미술관 중장기 건립 계획 사업으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함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실(의전비서관),
기획예산처(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공약 이행 촉구 건의문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에 공식 착수함에 따라, 정부가 100만 특례시민과 약속했던 국정과제 이행의 실효성 있는 결단이 강력히 요구된다.

이번 수요 조사는 단순한 지자체 간의 소모적 유치 경쟁 공모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극심한 문화 인프라 편중을 시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엄중한 정책적 이행 과정이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 과천, 덕수궁 등 수도권 3개소와 중부권 청주관만 운영 중이며 대전관 개관을 앞두고 있어 국가 문화시설의 특정 권역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경남·부산·울산을 아우르는 동남권 전역에는 단 한 곳의 국립미술관도 존재하지 않아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권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또한 문체부의 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미술관 수는 경남이 3.10개로 전국 평균 5.66개와 지방 평균 7.19개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특히 창원시는 비수도권 유일의 100만 특례시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등을 포함한 국립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현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남 7대 공약이자 15대 추진과제로 엄연히 명시했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이라는 국가적 약속의 철저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창원시는 김종영, 문신 등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을 배출한 예술의 고장이자 창원 조각 비엔날레, 마산 국화축제 등 특색 있는 인프라로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문화 거점도시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의 유치 대상 부지인 마산해양신도시는 마산만의 지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바다와 예술이 융합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해양 조망형 미술관으로 손색이 없다.

대한민국이 균형 있는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인프라 격차의 완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은 인공지능 등 차세대 디지털 혁신 기술이 구현된 첨단 미래형 미술관이자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누리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동남권역의 누적된 문화적 소외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100만 특례시민과 지역 예술계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신규 분관 수요조사 과정에서 경남 핵심 공약인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이를 국립미술관 중장기 건립 계획에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해양 조망형 부지 여건과 거장들의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시립미술관·박물관을 연계한 복합문화예술 벨트 구축
의 최적지인 창원시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즉각 결단하라.

2026년 7월 일

창 원 시 의 회